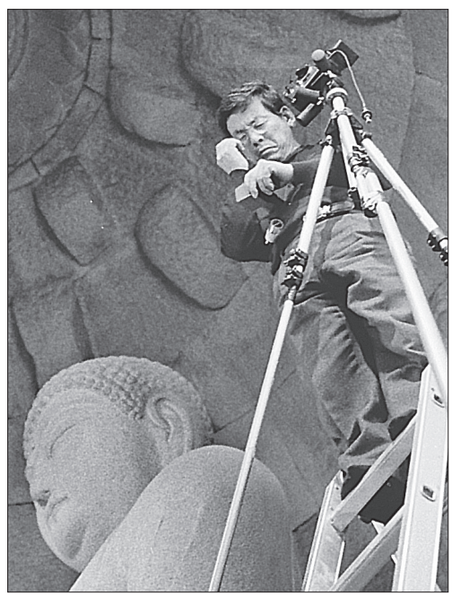
대가의 앵글에 비친 석굴암 '진면목'

국립문화재硏 '석굴암, 그 사진'
故한석홍 유족 기증사진들 공개
세 차례 걸쳐 필름 1172장 기증
주실 · 전실 · 비도 세세하게 담아
각 부문마다 전문가 해설 첨부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석홍 작가가 촬영한 석굴암 내부 전경 사진.


석굴암 촬영 중인 故한석홍 작가

천년고도 경주에 자리한 석굴암은1995년 불국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 현재는 자랑스러운 세계유산이지만 석굴암은 조선시대를 거치며 잊혀 방치되다가 1909년 경주의 한 우체부가 토함산서 발견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왔다.

석굴암의 존재를 알게 된 일본 정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많은 유리건판 사진들을 남겼다. 가장 이른 유리건판 사진은 1910년에 촬영한 서울대 박물관 소장 사진이다. 이는 발견 직후 석굴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26년부터 1945년까지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재직했던 후지타 료사쿠(1892~1960)는 경주를 조사하며 많은 유리건판 사진을 남겼는데 이중 372장이 현재 성균관대 박물관에 있다. 이중 86장이 석굴암 사진으로, 1913년 일제가 진행한 석굴암 해체 복원 과정이 담겨 있어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

이렇듯 1909년 재발견돼 지금에 이르기까지 석굴암을 기록한 사진들은 그 질곡의 역사를 담아낸 중요한 사료이다. 재발견 직후의 석굴암 사진은 대부분 일본 정부와 학자가 연구 · 조사를 위해 촬영했지만,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국가가 안정되면서 우리 정부가 주도로 석굴암을 보수하며 사진을 남기기 시작했다. 1961년부터 1964년까지 당시 정부는 석굴암을 수리했고, 정명호(1934~), 故 김준식(1923~1992), 故 정영호(1934~2017) 교수에게 촬영을 맡겼다. 당시 촬영자들은 석굴암 수리의 전 과정을 35mm수동카메라에 장착한 셀룰로이드 롤필름으로 생생히 담았다.

1980년대 이후 문화재 사진은 재현의 장치로서 전문적인 영역이 구축된다. 문화재 전문 사진촬영을 이끈 대표주자가 바로 故 한석홍(1940~2015) 작가다. 앞선 시기의 문화재 사진 촬영이 과정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에 가까웠다면, 그의 사진은 문화재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재현의 장치이자 예술작품이다. 우리가 흔히 접했던 대부분의 석굴암 사진은 故 한석홍 작가의 작품이다.

故 한석홍 작가가 석굴암을 접한 건 1981년으로 일본에서 출간한 〈세계의 미술〉 제2권 한국 · 동남아시아편의 석굴암 사진을 담당하면서부터다. 이후 1986년, 2000년 미술사학자 강우방 선생의 저서의 사진을 의뢰받아 다시 석굴암 촬영을 진행했다. 세 차례의 촬영을 통해 그는 석굴암 전실 · 비도 · 주실에 있는 팔부중 · 금강역 · 사천왕 · 호법신장 · 보살상 · 승려상 · 본존불 등의 면면을 필름 1172장에 담아냈다.

그는 석굴암 촬영 시 4×5인치 필름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필름카메라를 활용했다. 커다란 필름카메라가 문화재의 왜곡을 최소화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의 사진이 "사실에 근거한 역사서술에 가장 적합한 시각자료"(임영애)라고 평가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故 한석홍 작가가 남긴 유산인 석굴암 사진 1172장은 이제 사진집 〈석굴암, 그 사진〉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故 한석홍 작가의 유족들이 아무런 조건과 대가없이 세 차례에 걸쳐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석굴암 사진을 모두 기증했기 때문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기증받은 필름을 고화질의 디지털 자료로 변환했으며, 선별된 사진 100여 장과 배치도, 전문가 해설을 곁들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사진집으로 꾸몄다.

1970년대 석굴암의 보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유리벽이 설치돼 실제로 그 모습을 보기 어려운 까닭에 故 한석홍 작가가 남긴 유작들은 재현의 장치를 넘어선 예술로서 더 귀중하게 다가온다.

사진집 해설의 참여한 임영애 동국대 미술사학과 교수는 한석홍 작가의 사진을 이렇게 평가한다. "그는 누구보다도 석굴암 조각을 오차없이 사진으로 재현하려 애썼다. 그의 석굴암 사진은 엄연히 '예술'이다."

무대서 만나는 '삼국유사' 이야기들

뮤지컬 '삼국유사' 오는 11월 6~7일
건국대 새천년관서… 첫 서울 공연
단군 · 주몽 · 선화공주 일화로 구성


지난해 초연된 뮤지컬 '삼국유사'의 한 장면.

지난해 12월 초연했던 뮤지컬 '삼국유사(러닝타임 90분, 인터미션 없음)' 공연이 11월 6일부터 7일까지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단군, 주몽, 선화공주의 이야기로 구성된 뮤지컬 '삼국유사'의 2020년 버전은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오세혁이 각색과 작사로 참여했다. 오세혁 작가는 "〈삼국유사〉를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책으로 바라보고 뮤지컬로 각색했으며 초연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향가 '혜성가'와 '도솔가'를 접목시킨 주인공 '일연'의 넘버 구성으로 〈삼국유사〉 속 아름다운 말과 상상력을 뮤지컬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창작 뮤지컬 〈더 픽션〉 〈어나더 어스〉 연극 〈왕족서간〉의 연출과 창작뮤지컬 〈무인도 탈출기〉의 극작 및 연출 제작까지 진행하며 한국 창작 뮤지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는 윤상원이 연출로 합류했다. 그 외 브로드웨이에서 꾸준하게 활동했던 작곡가 이진구와 제8회 더 뮤지컬 어워즈 안무상을 수상한 김준태가 초연에 이어 함께한다.

이번 뮤지컬 〈삼국유사〉는 작품의 캐릭터에 가장 잘 부합하는 배우들이 함께해 기대를 높인다. 〈다윈영 악의 기원〉 〈신과 함께〉 등 서울예술단의 대표적인 창작 뮤지컬에서 변화무쌍한 연기와 날렵한 무용까지 보여줬던 배우 최인형(본명 최정수)이 〈삼국유사〉의 저자이자 극 속에서 다양한 역할로 변신해야 하는 '일연'을 연기한다. 뮤지컬 '지하철1호선'에서 문디 외 9개의 역할을 소화해낸 배우 박근식이 새롭게 합류해 운명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주몽'의 캐릭터를 박근식이 자신만의 스타일로 풀어간다. 또한 초연에 이어 이번에도 '선화공주' 역할에는 '뮤지컬계의 여신'으로 불리는 배우 랑연이 함께한다. 배우 랑연은 뮤지컬 〈해적〉에서 '젠더 크로스(한 역할을 남성, 여성 배우가 함께 연기하는 것)'를 연기하며 탄탄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한국 전통문화의 다채로운 표현과 불교문화를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기 위한 기획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후원하고,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했던 인각사 후원으로 제작된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관련 국가시책에 따라 좌석 간 거리 두기로 진행될 예정이며, 공연장 방역을 철저히 하여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가족단위 관람객에게는 특별 할인이 적용되며, 서울시민만을 위한 가격 할인을 통해 보다 많은 서울시민이 공연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뮤지컬 〈삼국유사〉의 티켓오픈은 10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10-8263-3964 박재완 기자

한국불교 '세계유산' 활용 프르그램 눈길

문화재청, 프로그램 23건 선정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세계유산을 활용한 내년도 프로그램을 공모해 세계유산 20건과 세계기록유산 3건을 활용한 총 23선의 프로그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은 인류 자산인 세계유산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누리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됐다.

내년도 불교 관련 세계유산 활용 사업으로는 세계유산 '한국의 산지 승원'에 포함된 △보은 법주사의 '법주사 산지승원 4차산업을 만나다' △공주 마곡사의 '마곡사 보물찾기' △순천 선암사의 '선암사를 걷다, 만지다, 담다' △해남 대흥사의 '4인4색 주말체험마당' △안동 봉정사의 '다시 태어나는 봉정사' △영주 부석사의 '부석사 야간기행' △양산 통도사의 '통도사 개산대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노천 불교박물관'으로 유명한 경주역사유적지구의 사적 제311호 남산 일원을 활용한 '남산VIEW 역사의 비밀을 풀다'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사적 제150호 미륵사지를 활용한 '세계유산 달빛공연' 등도 주목할만 하다.

신성민 기자

코로나19대응
제27회 청암사 승가대학,율학승가대학원
총동문회 취소안내

삼보에 귀의하옵고
코로나와 긴장마로 인하여 동문 스님들 심려가 크시겠지요.

존경하는 선배님! 후배님!
일 년에 한번 뵐 수 있는 동문회를
취소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합니다.

동문스님들과 청암사 대중스님들의 안전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년 10월 6일 화요일 예정되어 있던 제27회 동문회 취소를 알려드립니다.

좋은날 다시 만나 뵙기를 발원하며
동문스님들의 청안하시기를 두 손 모읍니다.

청암사 총동문회장 유화, 소임자 일동 합장

스님 세계에 깊게 배인
속단의 습관을 버리시면 보이는 세계!

오직! 소리 구경 조건으로만 신청을 하시면 반드시! 그 부근을 지날 때에만 방문하여 초간단 견본으로 귀법당 시설과 소리비교시 장난감 성능차이 확인, 특히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장엄한 염불소리 반드시 확인.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290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방생용, 각종 마이크 구경, 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